

콜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2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039천 km ²	G D P	2,333억 달러(2009년)
인구	45.66백만명(2009년)	1 인 당 GDP	5,038 달러(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Peso(Ps)
대 외 정 책	경제중심 실리외교	환 율(달러당)	2,166.79(2009년 평균)

□ 콜롬비아는 인구가 브라질에 이어 남미 2위인 4천 6백만 명에 이르고 있고, 2009년 GDP 규모는 2,333억 달러, 1인당 GDP는 5,038달러인 하위중소득국임.

□ 1990년대 후반에 고금리 및 재정적자로 인한 외채 누적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우리 베 정권 취임 이후 치안 개선에 따른 투자여건 호전,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커피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하였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e	2010f
경제성장률	6.7	6.9	2.7	0.8	4.4
재정수지 / GDP	-0.4	-0.4	0.5	-2.2	-3.6
소비자물가상승률	4.3	5.5	7.0	4.2	2.3

자료: EIU

□ 대외 여건 개선으로 경제성장세 회복

○ 콜롬비아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무장 게릴라 활동과 마약 범죄 만연으로 정국불안이 지속되었으며, 1990년대 말 수출부진,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 외채 누적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음.

○ 2002년 우리베(Alvaro Uribe)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범죄 예방 정책 실시로 치안이 개선되어 외국인투자가 회복되었으며,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커피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2007년까지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 우리베 정권 취임 이후 2002년 21억 달러에 불과하던 FDI 유입액이 2008년 106억 달러로 확대

○ 200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수출 및 FDI 증가, 내수 호조 등에 힘입어 1995년 이래 최고치인 6.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에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경기 침체, 주요 수출 품인 석유 및 커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심화로 0.8%로 둔화하였음.
-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402억 달러, 전년대비 18.1% 증가), FDI 증가(94억 달러, 전년대비 28.8% 증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4.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 재정수지의 경우 연금지급, 외채 이자비용, 지방 정부 지원, 과다한 국방비 지출 등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로 GDP 대비 0.5% 내외로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2008년에는 재정수지가 균형(0.5%)을 유지하였음.
- 2009년에는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해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로 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적자폭이 2.2%로 확대되었음.
- 2010년에는 유류세 징수액 축소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적자가 GDP의 3.6%로 확대되었음.

□ 물가상승률 안정세 유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0년대에는 정부의 선심성 지출 확대, 폐소화 약세 지속 등으로 20%대에 육박하였으나, 이후 중앙은행(Banco de la Republica)의 적극적인 긴축통화정책에 힘입어 꾸준

히 감소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 4~5%대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금리 인상 및 폐소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상승,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까지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내수 침체,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4.2%까지 둔화하였음. 2010년에는 중앙은행의 긴축통화정책 지속으로 물가상승률이 2.3%까지 둔화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미 의존도 및 외부 변동에 취약한 수출 구조

- 2009년 콜롬비아의 GDP 구성은 서비스업 52.8%, 제조업 38.2%, 농업 9%로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반해, 교역 상대국 비중 면에서는 2009년 콜롬비아의 대미 수출 및 수입이 각각 33.4%, 31.7%를 차지하는 등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며, 수출의 반 이상이 석유, 석탄, 커피 등 1차 산품에 치중되어 있어 기후 변화 및 국제가격 시세 변동 등 외부적인 변동 요인에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음.

나. 성장잠재력

□ 친시장적 정책 및 치안 상황 개선에 따른 FDI 유입의 대폭적인 확대

- 우리배 대통령의 지속적인 재정 개혁 노력 및 친시장적 정책과 더불어 우익 민병대의 무장 해제 등을 통한 치안 상황 개선을 통해 콜롬비아는 지속적인 FDI 유입 효과를 거두어 왔으며

2007년에는 GDP의 4.4%인 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취임 전인 2001년 25억 달러대비 260%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록하였음.

- 2008년 콜롬비아 내 FDI 유입액은 106억 달러로 2004-07년간 매년 평균 74.4억 달러 내외 FDI가 유입되었음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수준임.
- 2009년에는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 자원가격 하락, 미국과의 FTA 발효 지연 등으로 FDI 유입액이 73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석유 및 석탄 등 자원부문에 대한 투자 재개로 94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 높은 원유 매장 잠재력 및 유전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

- 콜롬비아의 원유 확인 매장량은 15억 배럴로 중남미 6위 산유국이나, 투자 재원 부족으로 전국토의 20%만을 탐사한 상태여서 향후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큼.
-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지 못하면, 2010년 이후 원유순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로 인해 우리베 정부가 외자유치를 통한 원유 및 천연가스 광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유전 개발분야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콜롬비아는 석탄 매장량 중남미 1위국(세계 12위)으로 수출액 중 석탄이 원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석탄의 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고 있음(수출량 세계 5위).

다. 정책성과

□ 재정 개혁 및 각종 개혁 추진

- 우리베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적극적인 부채 관리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외화표시 부채를 국내 통화 부채로 지속적으로 전환하여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을 축소시켜 왔음.
- 2006년 3월 재선에 성공한 우리베 대통령은 기존의 신중한 긴축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각종 구조개혁을 통해 공공 재정 강화에 힘썼음.
- 또한, 공공부채 축소 및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안정화, 금융부문 강화, 민영화를 통한 인프라 건설 확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정책을 통해 2002년 출범 이후 고도 성장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 2010년 8월에 출범한 집권당 출신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도 우리베 정부의 친기업 성장 주도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2,989	-5,977	-6,901	-5,033	-6,300
경 상 수 지 / G D P	-1.8	-2.9	-2.8	-2.2	-2.1
상 품 수 지	322	-596	971	2,546	3,600
수 출	25,181	30,577	38,534	34,026	40,200
수 입	24,859	31,173	37,563	31,480	36,600
외 환 보 유 액	14,673	20,096	22,810	23,158	25,722
총 외 채 잔 액	38,934	44,974	46,813	52,038	55,371
총 외 채 잔 액 / G D P	23.5	21.2	19.3	23.1	20.1
D. S. R.	30.5	21.3	16.1	19.8	19.8

자료 : EIU, IFS

가.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 추세 지속

- 콜롬비아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산업활동 증가 및 경기회복에 따른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증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배당금지급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최근 수년간 확대 추세에 있음.
- 2000년 이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1%대를 유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2.9%까지 확대되었음.
-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

하였으나,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배당금 지급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3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2%대를 기록하였음.

□ FDI 유입액 증가세 지속

- 2002년 출범한 Uribe 정부의 친시장적 정책 및 치안 개선 노력으로 콜롬비아의 FDI 유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2002년 21억 달러에 불과하던 FDI 유입액이 2008년 106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2009년에는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 자원가격 하락, 미국과의 FTA 발효 지연 등으로 FDI 유입액이 73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석유 및 석탄 등 자원부문에 대한 투자 재개로 94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나. 외채상환능력

□ 외채지표 개선 추세 지속

- 수출호조와 FDI 유입 지속 등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증가와 외채 상환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외채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실제 외채상환불능위험도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 총외채잔액은 2010년 11월말 현재 554억 달러 수준이며,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06년 23.5%에서 2010년에는 20.1%로 크게 낮아졌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2010년 8월 산토스 정부 출범

- 2010년 8월 집권여당의 전임 국방장관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강력한 범죄 예방 정책을 펼치는 등 우리베 정부의 친시장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베 대통령의 2010년 3선 시도 실패

- 콜롬비아는 보수당과 자유당 사이의 정치 투쟁이 정점에 이른 대폭력 시대 이후 국민전선 체제를 통해 양당간 교대 집권 및 주요 공직 공동 배분으로 정권 안정을 이루었으며, 1974년 전선 해체 이후에도 선거를 통해 비교적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지속 하였음.
- 2002년 8월 취임한 우리베(Alvaro Uribe) 대통령은 강력한 마약 퇴치 및 게릴라 소탕 작전을 전개하면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였으며, 높은 국민 신임도를 토대로 2006년 3월 재임에 성공하여, 2010년까지 집권하게 되었음.
- 높은 정책 지지율(2009년말 80%)을 기반으로 우리베 대통령의 세번째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부결로 임기 연장 추진이 실패로 끝났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치안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게릴라 문제 지속

- 콜롬비아는 2대 게릴라 단체인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FARC), 국가해방군(ELN)과 70-80년대에 등장한 마약 카르텔 및 우익 민병대(AUC)의 활발한 활동으로 불안한 치안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Uribe 정부 취임 이후 치안 강화 및 꾸준한 협상 노력을 통해 2006년 우익민병대(AUC)가 공식적으로 무장해제를 선포함.
- 2008년 3월 창시자이자 최고 지도자였던 마누엘 마를란다의 사망과 정부군과의 충돌 끝에 서열 2위 라울 레제스가 사망하면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며, 계속된 정부군과의 충돌로 인력 및 재정 기반이 약화되었음.
- 강력한 치안 강화 정책과 더불어 Uribe 대통령 취임 이후 경기 회복으로 실업 및 빈곤 문제도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2008년 게릴라 단체에 의한 납치 건수가 2002년 대비 88%로 감소하는 등 치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게릴라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마약관련 조직범죄 발생 등 고질적인 치안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

3.국제관계

□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 콜롬비아는 미국, EU 등 친서방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1999년도부터 매년 6-7억 달러의 마약 및 게릴라 소탕자금을 지원받는 등 전통적으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와 함께 1991년에는 안데안 지역의 마약밀매 근절 등을 목적으로 안데안 무역 특혜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 관계도 활성화되었음.

수입 증대, 재정적자 축소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6월에 각각 콜롬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BB- 및 BB+로 상향조정함.

- Moody's는 콜롬비아 외채 부문의 괄목할 만한 개선, 경제 개혁의 지속, FDI 증가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감안, 2008년 6월 종전 Ba2에서 Ba1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함.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미국EXIM: 최고부보율적용
- ECGD: 최고부보율적용
- Hermes: 단기전액인수가능

3. 외채상환태도

□ 외채 상환 태도 양호

- 콜롬비아는 1980년대 초 중남미 외채 위기시 공적 채무에 대하여 리스케줄링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외채 상환 및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태도로 국제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그 동안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아왔음.
- 한편, 2005년 4월에 IMF와 18개월 만기 6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 협정을 갱신하여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추진하였으며, 외채 원리금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함.
- 2009년 5월에는 위기 예방 차원에서 IMF의 FCL(Flexible Credit Line: 1년 만기 탄력적 신용한도) 35억 달러를 도입하였으며, 금년 5월 이를 연장하였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콜롬비아 교역규모

단위: 천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1,090,759	797,029	1,153,657	산업용기기, 운송장비, 소비재, 화학제품, 제지, 연료
수 입	143,429	124,918	325,157	석유, 커피, 석탄, 에메랄드, 니켈, 바나나
합 계	1,234,188	921,947	1,478,814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해외직접투자현황(2010년 9월 누계, 총투자 기준) 19건 74,811천달러

□ 교역규모는 922백만 달러(2009년)

- 콜롬비아와의 교역 규모는 2006년 11.2억 달러, 2007년 12.4억 달러, 2008년 12.3억 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9.2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2009년 기준 총 수출액은 7.97억 달러, 수입은 1.25억 달러를 기록
-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석유 화학 제품이며, 특히 2007년과 2008년 전체 수출액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전체의 55.0%, 64.8%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로부터 철강 금속제품, 농림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음.

□ 대 콜롬비아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2010년 9월말 기준 총 19건, 74,811천 달러임.

V. 종합 의견

- 석유, 석탄, 가스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인 콜롬비아는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FDI 유입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 외채 상환 등으로 외채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음.
- S&P가 콜롬비아에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는 등 콜롬비아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며, 콜롬비아 정부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은 국내경제 부문의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됨.
-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의 산토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책 지지율이 높은 우리배 정부의 친기업 성장 주도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C1(stable)등급을 유지코자 함.

문의 : 조사역 박현희(☎3779-6676)

E-mail : sarapark@koreaexim.go.kr